

제주 제2공항 찬반 충돌에 공청회 파행

도, 기본계획 과제발굴 위해 어제 1차 도민공청회 개최
반대측 단상 점거하며 항의 찬성측 피켓 들고 맞붙 시위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연출
찬반 대립 속 공청회 강행 행정 갈등 조장력 ‘도마 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1차 제주도민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반대 측의 단상 점거와 피켓시위가 이어졌으며 찬성 측은 피켓시위, 구호 제창으로 맞섰다. 결국 공청회는 예정된 2시간을 절반도 못 채운 40여분만에 마무리되면서 행정의 갈등 조정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1차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 반영과제안 설명은 이범현 국토연구원 박사가 맡았으며, 참석자 질의시간이 준비됐다. 하지만 반대측과 찬성측의 충돌과 행정의 중재 실패로 공청회는 실속이 없는 ‘요식행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제 설명은 있었지만 질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 오라1동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 1차 공청회’에서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이 각각 조기 건설, 건설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뒤엉켜 서 있다.

반대측은 공청회 시작 20여분 전부터 단상에 올라 ‘기본계획 중단’ ‘찬성측의 사기극 ADPi 은폐’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맞서 찬성 측은 ‘일단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할 것 아니냐’ 등을 외치며 단상 점거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반대측 도민은 공청회 예정시간을 넘어서도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공청회 진행을 가로막고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찬성측 도민은 단상 위 피켓을 들고 있던 반대측 도민을 미는가 하면, 고성언어가 오가며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단상 점거를 무시한 채 설명회를 강행,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다. 게다가 장내 소란이 정리되지 않자, 질의시간을 생략하고 행사를 마무리해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과제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됐다.

마지막인 2차 공청회는 6월초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이자 소음피해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안에는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편입 주민 지원 방안 △제주시지역 공항은 영권 참여 방안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법적 근거 마련과제 등이 담겼다.

“언제 잘릴지 몰라”… 서러운 비정규직

도내 제조업 43%·건설업 18%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부는 최저시급도 못 받아… 근로환경 개선 요구

제주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주시지역 2차산업 지정규직 근로환

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민철 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제주시지역 비정규직 근로실태 및 근로환경개선 연구-2차산업(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연구는 제주도내 만 20세 이상 건설업·제조업 비정규직 종사자 549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28일부터 7월 13일 1차 조사, 같은해 9-

11월 2차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43.4%이며,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8.6%로 나타났다. 근로기간을 묻자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 33.7%와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 35.7%가 ‘계약종료기간을 모른다’고 답했다. 근로기간의 경우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개월 이하’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3년~5년(17.4%)’ ‘1년~3년(16.3%)’ ‘1년 이하(15.2%)’가 비슷하게 나왔다.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이하(18.6%)’ ‘1개월 이하(18.2%)’

‘6개월 이하(18.2%)’ ‘1년~3년(17.9%)’로 비등하게 조사돼, 근로기간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7530~1만원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시급 미만도 12.0%나 됐다. 건설업은 시간당 1만500~2만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2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도 32.4%로 뒤를 이었다. 희망임금 대비 실제임금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임금 충족률이 제조업 76.0%, 건설업 90.0%로 조사됐다.

현 팀장은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조업 임금체계 개편 ▷건설업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법률교육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상여금, 퇴직금 등 복리후생제도 집중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가축질병 진단·치료비 보험으로 보장

제주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올 8-9월 시행… 국비 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3일 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은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가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 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며, 우선 대상축종은 소(한우, 육우, 젖소 등)로 올해 8-9월 시행 예정이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이개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제안했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해안도로에 설치된 난간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이태윤기자

‘늑장보수’에 안전 못지키는 안전난간

송악산 해안도로 난간 등
교통안전시설 훼손·방치

“제주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송악산 해안도로에 설치된 난간이 훼손된 채 한달 넘게 방치돼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도 우려스럽네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해안도로에 설치된 안전 난간 등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3일 대정읍 송악산 해안도로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된 난간이 훼손돼 있었다. 또 훼손된 난간 주위에는 별다른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서진 난간 자재 등이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송악산 해안도로 일대에 설치된 목재 소재의 난간이 전반적으로 색이 바래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돼 있는 등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날 송악산 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 김모(42)씨는 “훼손된 난간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해 보인다”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송악산 해안도로 일대에 조성된 난간도 색이 바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30)씨는 “훼손된 난간이 한달 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보수가 늦어지면 최소한 훼손된 난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 이뤄지지 않아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훼손된 난간을 즉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보수 용역을 맡은 업체의 일정이 맞지 않아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정비에 들어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북초등학교 개교 112주년

대한민국 최초 초등학교생 만세운동 99주년 기념

제주북초! 대한독립을 외치다!

일 시 : 2019년 5월 25일(토) 오전 8시 ~ 오후 1시

장 소 : 관음사 ~ 관덕정

프로그램 1 / 제주시청 합류

- 1진 8시 20분 제주북초 출발(버스) → 관음사 도착 → 관음사 출발(도보) → 제주시청 도착
- 2진 10시 제주북초 출발(도보) → 제주시청 도착
- 3진 10시 50분 제주시청 현장 합류

프로그램 2 / 제주시청 행사

- 10시 50분 1진 2진 3진 제주시청광장에서 만세운동 재현 및 거리 홍보
- 11시 15분 1진 2진 3진 제주시청 출발(도보)
- 11시 50분 관덕정 도착

프로그램 3 / 관덕정 행사

- 12시 본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 1시 점심식사

* 드레스 코드 : 검은색 티셔츠 또는 흰색 티셔츠

* 제주북초동문 가족동반 대환영

* 모든 참가자에게 태극기, 물, 간식, 점심 제공

* 우천시 정상 진행

주최·주관 : 제주북초등학교총동창회

문의 : 제주북초등학교총동창회 사무국 ☎ 755-1907, FAX 723-0400

후원 : 제주북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총동창회장 강 태 식

제6회 효돈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신록의 계절에 효돈초등학교 동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효돈초등학교 동문의 단합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6회 효돈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 5.25(토) 오전 10시

■ 장 소 : 효돈초등학교 운동장

■ 연락처 :

효돈초등학교 총동문회장 이대현 010-7696-2180

효돈초등학교 총동문체육대회 집행위원장 김용수 010-2690-4764

효돈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 오영훈 010-2420-0630

주최 : 효돈초등학교 총동문회

주관 : 효돈초등학교 총동문회

19TH TAMLA GUKAK CULTURE FESTIVAL

제19회 한글 축악제



■ 일시 : 2019. 5. 25(토) 오후 7시

■ 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모시는 글

올해도 여전히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계절이 바뀌고 여기저기에 핀 꽃들이 발나비를 유혹하며 여름을 만들어 가는 이때에 **제19회 탐라국악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해 전통가락의 세계가 모든 국민의 땃속에 흐르는 민족의 예술혼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얼마나 맛과 흥을 지닌 문화민족인가를 인식하게 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꽃향기보다도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국악의 대향연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나는 걸놀이를 시작으로 웅장한 태평소 합주가 어우러지는 무대에 오셔서 격려의 박수와 신명나는 어깨춤을 추워보시고 풍류도의 맛을 한껏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사)한국국악협회 서귀포지부 회원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317번길23
H.010-2697-0560 F.070-8900-0560